

# “고향기부제 농특산물 답례품 공론화를”

### 양성빈 도의원, 전북도 미온적 태도 질타... “도입 위해 서명운동·캠페인 등 전력 기울여야”

전북도의회 양성빈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수)이 22일(수) 열린 제348회 전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송하진 지사를 상대로 고향기부제 및 농특산물 답례품 제공이 법률에 포함될 수 있도록 도가 나서서 공론화 정책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양성빈 의원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10건의 관련 법안 모두 기부 납세자의 범위나 기부 납세대상지역이 제각각”이라며 “자칫 손을 놓고 있다가는 ‘전북발 고향기부제’가 이를 받기 어려운 일부 수도권지역의 반대에 부딪쳐 지방재정 강화 및 농업과 농촌을 살리는 방향으로 법령제정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전북도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특히 양 의원이 강조하는 답례품 제공은 “농도 전북의 자존심을 지키고, 지사님의 삼락농정의 정점이자 완벽한 마무리를 위해서는 제값받는 농업, 즉, 농·특산물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우리 도가 나서서 꼭 포함시켜야만 하는 중대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전라북도와 재정지립도가 비슷한 강원도의 경우 새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고향세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정책건의, 일본답사 등 고향세 도입 및 도입이후 빠른 제도 정착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전남도 또한 전남출신



양성빈 의원



김영삼 대통령 추모식 추모사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 김영삼 대통령 서거 2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추모사를 하고 있다.

국회의원 등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통해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도의 대응방안으로 양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서명운동과 캠페인을 통해 공론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양 의원은 “실효성 있는 고향기부제를 위해 농·특산물 답례품 제공 도입을 위한 서명운동 추진 및 캠페인을 통해 여러 농민단체 및 농협, 14개 시군 관계자,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의 공론화 작업을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다. /김진성 기자

### “선거권 만 16세로 낮춰야”

#### 국회 찾은 고등학생들 입법 청원 기자회견

고등학생들이 국회를 찾아 선거권 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만 16세로 낮출 것을 요구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박노현 더불어민주당의원연대 공동대표(전 서울시 교육감), 고등학생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만 16세 선거권을 보장 하라는 입법 청원 기자회견을 가졌다.

현행법에서는 각종 공직선거의 선거권 연령을 만 19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국회에는 선거권을 만 18세로 낮추는 법안이 계류중이다.

만 16세 선거권 청원에 나선 서한을 굳은 “작년 우리는 정치에 관심이 많았다. 쉬는 시간 우리의 대화 주제는 전날 본 뉴스 내용이었고 하루하루 드러나는 황당한 현실이었다”며 “비록 투박한 말투였지만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웃고 떠들었다. 진중하되 너무 무겁지는 않고, 격앙되어 싸우거나 불편한 분위기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주어진다면 학교가 정치판이 될 것이라고 걱정한다”며 “그러나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소식을 공유하고 대자보를 붙이고 집회에 참여해 학교는 그야말로 정치판이었지만 우려와는 달리 학교에서 발생한 문제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뉴스

### 김대중, '익산 폐석산 문화관광 콘텐츠 활용' 세미나

더불어민주당 김대중 도의원(익산)이 '익산 폐석산을 활용한 문화관광 콘텐츠 활용방안'이라는 주제로 21일 개최한 세미나가 익산모현도서관 시청각실에서 400여명의 익산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익산의 고질적인 논쟁거리인 폐석산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시민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발제자로 나선 송광인 교수는 각국의 폐석산 활용사례를 소개하며 익산에 위치한 4곳의 폐석산은 '시민공원', '관광자원', '신재생에너지단지'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도 관광총괄과 전문위원 민동규 박사는 폐석산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접근성이 매우 중요하며, 기존의 익산 관광자원들과 연계 개발을 제안했다.

전라북도 산림녹지와 김상훈 산림보호팀장은 익산지역의 석산들은 지하채굴 방식으로 복구할 때 매립토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폐석산을 관광자원으로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 임진아 팀장은 폐석산을 관광자원화 함에 있어 전북만의 차별성을 갖는 콘텐츠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지역 시민, 예술가들이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사무처장은 폐석산 개발을 통한 이익이 익산시민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가 시책과 연계한 태양광 발전단지로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세미나를 개최한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대중 의원은 “홍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는 지역의 많은 폐석산을 놓고 시민들의 우려가 무척 높다”며 “폐석산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타시·도의 사례가 많은 만큼 익산을 대표하는 문화관광 자원으로 개발해 시민들께 되돌아 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김대중 의원

### “통합 찬성 9명뿐” vs “왜곡 말라”

바른정당과의 통합 문제를 놓고 ‘갈등토론’을 진행한 국민의당에서 토론 다음날인 22일에도 찬반 양측의 ‘뒤끝 발언’이 이어졌다. 통합 반대파인 박지원 전 대표와 정동영 의원이 라디오에 출연해 통합 반대파가 다수였다고 주장한 반면, 최고위서는 통합 찬성파의 반박 목소리가 나왔다.

박지원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 출연해 “어제 사실상 안철수 대표도 (포함해) 30명의 의원이 발언을 했는데 통합을 찬성하는 사람은 9명”이라며 “그 분위기 알지 않겠나”라고 했다. 통합 반대론이 대세였다는 것이다.

반면 대표적 통합 찬성파인 최명길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연대, 통합에 찬성하신 분이 26분이라고 저는 이해한다. 도저히 어떤 쪽인지를 알 수 없는 3분을 ‘반대’로 포함해도 그 부분(반대)은 14명”이라고 주장했다. /뉴스

## 도의회 교육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 시정 및 조치 78건·건의 8건 등 86건의 시정조치사항 채택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2일, 제348회 정례회 기간에 이루어진 도교육청 등 관련기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도교육청 분청 및 12개 직속기관과 14개 지역교육지원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 이루어졌으며, 감사결과 시정 및 조치사항 78건, 건의사항 8건 등 총 86건의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사항이 채택됐다.

주요 감사내용으로는 학교폭력 예방 및 관련 대책, 방과후학교 강사 처우개선, 진로상담교사 부족에 따른 대책, 고교 무상급식 대책, 학교급식 운영, 일제잔재인 학교 조화대 제거, 미세먼지 관련 대책, 교권침해 대응책 마련 등 도교육청의 주요

시책 전반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졌다.

특히,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추진이 필요하며(양용모 의원), 상담기구의 기능 개선(이혜숙 의원), 지역교육청별 특수성을 반영한 예방계획 수립(조병서 의원), 학생 자살방지 대책 마련(정명식 의원) 등 학교폭력 근절과 예방을 위한 전반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2017년에 발생한 학교폭력 등 사건과 관련하여 각 학교의 학교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케 하고 학교현장의 현황과 대응 등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중점 점검이 이루어졌다.

이밖에도 10년째 동결된 방과후학교 강사 처우개선(최영규 의원), 고등학교 무상

급식 추진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최영규, 최인정 의원), 지속적인 기초학력 저하에 따른 대책마련(최인정 의원), 교권침해 대응책(강병진 의원), 시설사업비 증액에 따른 시설적 업무량 분석과 인력충원(양용모 의원),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운영관련 적극 홍보대책 필요(이혜숙 의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감사가 이루어졌다.

정명식 위원장(고창, 2)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다양한 문제제기와 합리적인 대안제시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방안들을 제안하면서 교육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교육위원회 본연의 역할 충실히 했다.”

한편 교육위원회는 오는 24일부터 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 돌입하고 약 3조3,000원 규모의 도교육청 2018년 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 14살 소녀들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여느 때와 같이 세 소녀는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다.

건너편 횡단보도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 한 분.

할머니의 상태가 위급하다는 것을 알고, 어딘가에서 휠체어를 빌려와 가까운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가족이 올 때까지 모두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다.

14살 소녀들의 기지와 사랑의 실천.

**따뜻한 학생들이 있어**

**오늘도 전북교육은 웃을 수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잊지 않습니다

가난은 학교를 행복은 교육입니다

지난 4월 전주 우림중 1학년 여학생 세 명(최수빈, 배은서, 박민지)은 효자동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 근처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쓰러진 70대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곧장 가까운 정형외과로 달려가 휠체어를 빌려다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갔고, 할머니의 가족들이 올 때까지 병실에서 곁을 지켰습니다. 이 따뜻한 인성은 25일 22일, 할머니께서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학교를 찾으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